

서면질문 및 답변서

□ 서면질문

- 질 문 자 : 김관수 의원
- 질문일시 : 2004년 8월 16일
- 질문내용(질문서)

시장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는 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직위는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지만 이사장이 기초자치단체장이므로 실질적 이사장 대우 및 대표권과 결재권,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이며 연간 사업 및 운영예산이 약 65억이나 되는 부천시의 거대 산하기관의 총수 자리입니다.

얼마 전 모 언론지에 보도된 내용을 참고하면 현재 부천문화재단의 상임이사로 거론되는 인사 중 지역 문화예술인이며 경기도 우수공예인이며 모 법인의 경기도 지회장을 맡고 있는 박 모씨가 유력하다는 보도를 읽어보았습니다. 언론보도 내용으로 보아 본 의원의 생각에는 해당되는 인사의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이나 수상경력은 개인의 문화예술능력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시장께서 여러 각도로 구상하시고 넓은 의미의 부천 문화발전을 위하여 결정하시리라 생각되어지지만 부천시의 연간 약 65억원의 지원을 받는 공익목적의 비영리재단법인이기에 정치적 논리로 자기 사람 심는 것같이 보여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번 질문서의 답변은 시장의 현명하신 판단에 따라 부천문화재단의 발전적 단초가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시 산하기관의 중요자리가 정치적 논리의 임명이 된다면 사업의 효율성도 문제가 되고 실무직원들도 근무의욕이 상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천문화재단 설립이 이제 만 3년이 되었으므로 이제는 문화예술부분의 객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전문경영인이 도입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문화재단이 사업중심이나 시설관리가 아닌 경기문화재단같이 활동하여 부천문화재단 정체성 확립과 지역문화 인프라 구축에 중점적으로 운영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한 아울러 부천시 시설관리공단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 이사장은 시 고위간부를 파견하여 대외대표권만을 가지고 실무운영 책임은 전문경영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인사권과 결재권을 가지고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의 발전을 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부천문화재단 상임이사직을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개인의 문화예술활동가나 정치적인 논리의 입장에서 인사가 아닌 문화예술 전문경영인으로 공개모집하여 임명할 의향에 대하여 질문드리며 85만 부천시민이 시민의 삶의 질속에 깊이 성숙한 문화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본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통해 부천문화재단 발전의 단초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서면답변

- 답변일시 : 2004년 8월 25일
- 답변내용(답변서)

부천문화재단이 2001. 10. 1. 출범한 이후 우리시 문화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고 ‘문화도시 부천’을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으며, 2003년 12월에는 전국문예회관연합회 선정 최우수기관과 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위원회가 청소년시설 우수 청소년위원회로 선정되어 각각 문화관광부장관 상을 수상하는 등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예술단체로 성장하고 있음.

현 상임이사의 임기는 2004년 9월 20일까지로 임기만료를 앞두고 사퇴 의사를 밝혀 후임 상임이사를 임명코자 추진 중에 있으며, 추천중인 인사는 우리 시와 경기도에서 꾸준히 문화예술분야 활동을 하여왔고 그러한 공로로 그동안 부천시 예능부문 여성상, 경기도 예능부문 여성상, 경기도 및 전국공예품경진대회 장려상, 은상 등 다수의 수상경력과 함께 성공회대 평생학습원 및 경기도 기전문화대학 강사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또한 쥘플문화연구회 경기도지회장,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이사, 경기도공예협회 이사 및 부이사장으로 활동하며 경영 능력을 인정받는 등 지역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능력을 갖춘 인사라고 생각함.

또한 신임 추천인사는 공예예술인으로서 다년간의 경험과 경력을 축적한 우리시 문화예술의 발전은 물론 문화재단을 통한

문화인프라 구축의 책임자라 생각되어 심사숙고 결정하여, 지난 8월 19일 문화재단 이사회에서 차기 상임이사로 의결된 바 있으며 관련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코자 하오니 의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의원께서 질의하신 전문경영인의 공개모집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으나 문화재단이 공공성을 띤 비영리법인으로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추구하다 보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으며, 문화재단의 사업방향을 시정이 추구하는 지역예술인의 지원 육성에 중점을 두고 서울 중심의 문화예술 활동을 탈피하여 진정한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주도하고 정립하기 위해서는 능력있는 인사를 임명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천의 문화예술 중흥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이제까지 다져진 ‘문화도시 부천’이라는 큰 틀에서 문화재단이 나아갈 목표를 만들어나가하고자 함.

향후 문화재단이 시민과 함께하는 도시로써 시정방향에 부합되는 목표가 정립되고 건실한 사업구조를 갖추게 되면 공개모집 등을 통한 전문경영인 영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